

새로운 성전장단 및 성전 선교사

지난 9월부터 신임 서울 성전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한인상 장로(성도의 벗, 1996년 8월호, 교회 소식 4쪽 참조)의 두 보좌로 최옥환 형제(제1보좌)와 김영수 형제(제2보좌)가 부름 받았다. 최옥환 형제는 치과 의사로서 서울 스테이크 부장과 서울·서울 서 지역 대표로 봉사했으며, 김영수 형제는 공무원 출신으로 마포 와드 감독과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했으며 현재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메이트론인 이규인 자매의 보조로 서인석 자매와 김진자 자매가 각각 부름 받았다.

한편 이상철 형제와 이근순 자매 부부가 1996년 10월 1일부터 18개월간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이상철 형제와 이근순 자매는 영동 스테이크 잠실 와드 출신으로 지난 1986년과 1994년에 이어 세 번째 성전 선교사 부름이다.
(박성식)

후반기 서울 스테이크 대회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서울 스테이크의 1996년도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9월 14-15일 양일간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의 감리하에 스테이크 센터인 신당 와드에서 개최되었다.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는 교리와 성약 20편 59절을 인용해 교회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였으며 가정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대신권과 성전 의식을 받고,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이어 열린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오희근 부장은 자기 자신과 다른 회원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간증을 다른 회원들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였으며, 소렌슨 자매는 어렸을 때 비활동이었던 아버지가 가정 복음 교사의 부단한 노력으로 변화되었던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노

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소렌슨 장로는 영생과 구속,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과 간증에 관해 말씀하였다.

다음날 개최된 일요 총회에서 이근혁 스테이크 부장은 선교 사업과 가족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하였고,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박광식 부장은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좀더 열심히 세상에서도 살아가도록 권고했으며, 신당 와드의 광경미 자매는 슈퍼 모델 선발 대회 참석을 위해 준비하던 중 개종한 자매로서 연애 활동을 하는 중에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경험을 간증으로 전했다. 이어서 새로 스테이크 초등학교 협회 회장으로 부름 받은 오부성 자매는 네 자녀의 어머니로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새로운 서울 성전장인 한인상 장로는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인 성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핑계를 대지 않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였으며, 소렌슨 자매는 경전을 읽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매일 매일 계획을 세워서 경전을 읽을 것을 권고하였고, 소렌슨 장로는 십일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며, 말일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축복이 약속된 계명인 십일조의 계명을 지켜서 마지막 날에 불에 타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자고 말씀하였다.

한편 이번 대회를 통해서 오부성 자매가 새로운 스테이크 초등학교 협회 회장으로, 김화자 자매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로 부름 받았으며, 신당 와드의 박준화 형제가 대제사에, 청운 와드의 김성곤 형제는 장로에 각각 성임되었다.
(박광선)

후반기 서울 강서 스테이크 대회

지난 8월 31과 9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의 감리로 후반기 스테



새로운 성전장단과 메이트론 및 보조들. 왼쪽부터 최옥환(제1보좌), 서인석(메이트론 보조), 한인상(성전장), 이규인(메이트론), 김영수(제2보좌), 김진자(메이트론 보조)

이크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8월 31일 오후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소렌슨 장로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훌륭한 신권 소유자를 양성해야 하며, 모든 젊은 형제들은 선교사로 봉사해야 하고, 신권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들이 성약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26세 이상의 모든 청년들이 성전에서 결혼하는 목표를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길정권 부장은 고대 유월절은 오늘날 성찬식이 지닌 의미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성찬을 취함으로써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도 임하게 하자고 말씀하였다.

최근에 귀환한 신정 지부의 홍정환 형제는 봉사는 희생이라기보다는 특권이라는 간증과 함께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전하였고, 역곡 지부의 이유미 자매는 리하이 일행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그 당시의 여인들이 날고기만을 먹고도 광야에서 자녀를 낳고 계명에 순종하여 번성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에게 허락하여 준 여섯 자녀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전하였다.

이어서 김두성 스테이크 부장은 환난과 고난은 인생과 함께 시작하고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므로 고난이 때로는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주님의 권고를 기억하여 환난과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이겨 나가자고 권고하였으며, 소렌슨 자매는 훌륭한 회원은 항상 경전을 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소렌슨 장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날인 9월 1일 63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일요 총회에서 김두성 스테이크 부장은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이며 주님을 의지하여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기는 사람들이 되자고 말씀하였고, 청녀인 화곡 와드의 오경현 자매는 복음을 알게 된 후, 변



강서 스테이크 대회가 끝난 후 소렌슨 장로 내외분과 함께 한 신권 역원들

화된 자신의 생활과 세미나리와 성찬식을 충실히 참석함으로써 얻은 축복과 간증을 전하였다. 신정 지부장인 김봉식 형제는 부름에 대한 간증과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으며,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이광준 부장은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였다.

소렌슨 자매는 매일 경전을 한 페이지라도 읽으면 사탄을 멀리 할 수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자매들이 경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감리자인 소렌슨 장로는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이를 위해 자매들이 경전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형제들에게 권고하였고, 물론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임을 구별케하는 표적이므로 물론경에 대한 간증을 갖도록 당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곡 지부의 박대준 형제와 부친 와드의 강민호 형제가 장로에, 역곡 지부의 김민식 형제가 대제사에 각각 성임되었다.

(최재춘)

후반기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

지난 9월 21일 22일 양일간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렉스 디 피네가 장로의 감리로 1996년도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로 가정을 강화하는 방법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피네가 장로는 일요 총회의 말씀을 통해 사회 혼란, 가족 간의 문제, 도덕성 추락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이 때에 이러한 현상들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회복된 참 복음 뿐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는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을 보고를 위해 방문하지 말고 실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하도록 권고했으며, 서울 동 스테이크의 이름은 시온의 서울 동 스테이크인 것을 강조하여 '시온'의 뜻인 하나가 됨, 가난한 자가 없음, 의로운 생활을 함을 항상 기억하여 '시온'에 걸맞는 일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박찬식)

위: 스테이크 대회가 끝난 후 피네가 장로와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단이 함께 할
아래: 서울 동 스테이크 족보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 족보 대회

“가정은 지상의 천국”을 주제로 한 족보 대회가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 지난 9월 14일 스테이크 센터인 미아 와드에서 개최되었다.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최진우 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대회에서는 고등 평의원인 최동일 형제가 ‘성서와 족보와의 관계’, 최석구 스테이크 부장이 ‘복음을 모르고 돌아가신 이의 구원’, 구본동 전 스테이크 부장이 ‘제사는 아직도 적 그리스도적인가?’, 도봉 와드 감독인 이형구 형제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은?’, 족보 사무실을 운영하는 신영환씨가 ‘족보 이야기’,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이우영 부장이 ‘모임의 취지와 전시물 설명’을 하며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대회장에는 한국 족보 촬영용 카메라, 클린턴 대통령에게 가족 역사 자료를 전달하고 담화를 나누는 힐클리 대관장 사진, 가족 선언문, 회원의 족보, 과거 시험 답안지, 과거 시험 응시자 명단, 진사 급제, 상소문, 가훈, 1800년대의 호적 등본, 가족 역사 영상 CD, 고서적(삼국지 연의, 강희자전 1929년 판, 한영 사전 1911년 판, 숙향전 및 임흥은전 필사본, 조선 신사 보감, 조선어학

본, 셈본 등), 옛 지폐, 옛 동전, 옛 신문 스크랩, 일기, 성도의 벗 창간호, 니파이삼서 한글 번역본, 1960-70년대에 발간되었던 상호부조회 월간지, 유성기관 등이 전시되어 흥미를 끌었으며, 참석한 구도자들에게는 가족 선언문, 가정은 지상의 천국 스티카, 가정의 밤 교재, 복음 원리 등을 증정했다. 또한 대형 현수막 ‘족보 대회’, ‘가정은 지상의 천국’을 준비해 부착하고 초정장을 준비해 복음을 모르는 이웃의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였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1년 전부터 계획하여 준비해 왔으며 구도자들에게 교회의 가족 역사 사업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 (박찬식)

서울 동 스테이크 가족 기록서 12,000매 작성

서울 동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96년 9월 현재 가족 기록서 12,000매를 작성하였다. 미아 와드에서 아홉 가족이 650매, 번동 와드에서 네 가족이 100매, 상계 와드에서 세 가족이 40매, 도봉 와드에서 11가족이 11,000매, 장위 지부에서 네 가족이 400매, 동두천 지부에서 6가족이 100매를 각각 작성 또는 제출했다.

그동안 가족 기록서 제출이 부진했던 회원들은 선조의 구원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는 담당 고등 평의원인 최동일 형제가 중심이 되어 와드 가족 기록 책임자가 족보 보유 가족 수를 조사하여 각 가정이 1년 동안 제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였으며, 족보 대회, 계보반 운영, 계보 세미나, 가족 기록서 기록 주간 등을 정하여 실천에 옮기는 등 각 와드/지부 회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 동두천 지부는 서울 선교부 산하 조직이지만 서울 동 스테이크의 가족 역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오고 있다. (박찬식)

서울 서 스테이크 독신 성인 노변의 모임

지난 9월 15일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독신 성인들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최근 귀환한 길운수 형제와 신은영 자매의 간증과 함께 스테이크 부장단의 독신 시절의 경험담을 들었다.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김용 부장은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 사회적인 많은 활동들을 포기했었다는 경험을 전했으며,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윤세영 부장은 교회내에서 결혼하는 것의 중요성을 경험과 함께 말씀했고, 이상태 스테이크 부장은 부지런히 공부해서 사회에서 역할을 잘 해야 교회 생활도 더 잘 할 수 있으며,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모든 의로운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간증으로 전해 주었다.

모임에 참석한 독신 성인들은 교회 내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해의 왕국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동기를 부여 받을 수 있었다.

(최정기)

서울 서 스테이크 귀환 선교사 대회

지난 9월 15일,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내 귀환 선교사 40여 명이 스테이크 센터에 모여 귀환 선교사 대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세계의 반으로 나뉘어, 귀환 후에 헤이해진 영적인 생활을 바로 잡기 위한 방안에 관해 김덕호, 김동현, 길운석 형제들의 인도로, 경전 읽기·기도·가정의 밤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 토론을 벌였으며, 세상적인 목표보다는 믿음을 우선으로 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각오와 선교사 시절의 주님에 대한 순종과 열의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대회 감리자인 이상태 스테이크 부장은 토론 후에 "모든 부름에 충실함으로써 회원들에게 귀환 선교사의 모범을 보여 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덧붙였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최정숙 자매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선교사 시절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최정기)

부산 스테이크 배영천 전 서울 성전장 귀환 노변의 모임

지난 8월 26일,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에서는 1960년부터 부산 지역에서 봉사한 지도자로 서울 성전장의 부름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명예롭게 해임된 배영천 전 성전장을 환영하는 노변의 모임이 개최되었다.

모임의 시작과 함께 수정 와드의 신성현 형제가 오카리나 연주를 선사해서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배영천 성전장의 큰 손녀인 배은진 자매는 3년간 조부모님과 함께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간증과 함께 훌륭한 교회에 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조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홍점 형제는 1967년 개종이후 한동안은 성전이란 그림에서만 보아야 하는 것인 줄을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결혼을 하고 인봉을 받으며, 오늘 성전장님과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했으며,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전영준 형제는 1969년 당시의 어렵게 신권을 받았던 시절을 회고하며, 그 당시 지방부장이었던 배영천 성전장

[원고 모집 안내]

"교회 소식"을 성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스테이크/지방부, 와드/지부의
특별한 행사, 회원 동정,
간증, 개종기, 시 등 다양한
기사를 접수합니다.

원고 접수처

주소 : 서울시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편집실 앞
TEL : 232-1441 / FAX : 235-3357
하이텔 : ldschrch



배영천 전 서울 성전장이 귀환 노변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준 의로운 모범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을 이야기하였다.

시온 합창단과 시온 챔버 오케스트라가 준비한 '새들 올고, 고기 튀는'을 듣고 난 후에 양기육 스테이크 부장은 처음 배영천 성전장을 접하면서 느낀 지도자로서의 모범과 지도력에 대해 말씀하며 참석자 모두도 젊었을 때부터 언행을 의롭게 하자고 권고했다.

이어서 등단한 배영천 성전장은 무릎 연골 수술 후 얻은 중요한 교훈 두 가지에 대해 말씀했는데 첫째,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할 때 기름 축복을 받고 이를 극복한 것이고 둘째는, 성전을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였다. 또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권고하며, 의롭게 잘 준비된 성도들이 우리 조상의 영들을 침례하고 승영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다며 성전에 갈 때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했다.

여러 연사들의 말씀을 통해 성전에 대한 간증과 이 땅에 세워진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모임이었고, 초기 이 지역 말일성도들의 끊임없는 희생과 신앙이 오늘날 교회의 발진을 이끌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유익한 모임이었다. (이희숙)

부산 스테이크 보이с카우트 경주에서 자전거 하이킹

1986년부터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부산 스테이크 보이с카우트의 하이킹이 지난 10월 3일에 실시되었다.

새벽에 출발하는 비둘기 호를 타고 차창 너머로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면서 16명의 지도자와 25명의 보이с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한 이번 모임에는 매마침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개설되어 작년보다 한층 안전하면서 가을의 운치를 맘껏 맛볼 수 있는 대회였다. 선두차를 운전하여 하이킹 코스를 정확히 인도한 강상섭 대장과 각 교차로마다 적절한 교통 통제로 안전한 하이킹이 되도록 함께 참여한 보이с카우트 지도자들이 도움을 주었다.

한편 부산 스테이크에서는 내년부터 보이с카우트 활동을 와드 단위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어서, 대별로 하이킹 코스를 다변화시키고 베이스 활동과 기능을 접목하여 유적지 연구와 대별 경쟁을 통한 대원들의 자질 향상과 주어진 과제 성취를 통한 자신감 배양 등에 중점을 두어 금년보다는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몽)

부산 스테이크 전영준·임인숙 부부 전국 독자 시 낭송 대회 대상 수상

"부부간 호흡을 맞춰 시를 읊노라면 행복이 절로 솟습니다."

지난 9월 23일 서울 호암 아트홀에서 열린 전국 독자 시 낭송 대회에서 전국 15개 지역의 대표들 중 부산 대표로 참가한 전영준 형제·임인숙 자매 부부(성도의 벗 10월호, 교회 소식 13쪽 참조)가 대상을 수상했다. 참가자들 중 유일한 부부 참가자였던 이들은 신혁득님의 "철수가 결석하던 날"을 윤송시 낭송을 하여 이처럼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다.

현재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 소속으로 슬하에 4형제를 둔 전 형제와 임 자매는 지난해 여성 신문사가 주최한 제1회 평등 부부상을 수상해 세인들의 관심이 되기도 했다. 1978년 결혼한 이후, 함께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며 오붓한 부부의 정을 쌓아온 이들은 1백여 쌍의 결혼식에서 시 낭송으로 행복을 빌어 주는 '사랑의 전도사' 역할을 해 왔다. 전영준 형제는 현재 부산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이희숙)

교육의 날 행사

지난 9월 1일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 중부 신학 연구원의 정태걸 형제는 "물문경의 기원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라는 주제로 브렌튼 지 요거슨의 통사론적 접근 방법, 휴 니블리의 문화적 접근, 다니엘 시 피터슨의 추리적 접근, 테드 이 브루어튼 장로의 역사적 접근의 이론을 통해 물문경의 기원에 관해 설명해 주었으며, 교회 교육 기구의 박병규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실까? 누구에게 나타나실까? 그때의 표적들은 무엇인가? 그 때 살아 있는 우리들은 누구이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또 사탄과 세상의 정부와 땅은 어떻게



경주에서 자전거 하이킹에 참여한 부산 스테이크 보이с카우트 지도자 및 대원들

될까?” 등의 의문에 관해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표준 경전을 활용해 설명해 주었다.

또한 특별 연사로 참석한 브라운 장로는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저 또 다른 기독교 교파 중의 하나가 아님을 깨닫기 위해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라고 권고하며, 이 속에는 모두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지파 중 한 개의 지파가 집합하는 것이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였다. 또한 주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성약과 축복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경전을 연구하여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지니도록 권고했다.

오랫만에 개최된 교육의 날 행사를 통해 함께 참석한 청소년을 비롯한 이 지역의 많은 회원들이 경전과 이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시간이 되었다. (이희숙)

부산 스테이크 ‘멋진 청년 무도회’

지난 9월 21일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는 ‘멋진 청년 무도회’가 개최되었다.

함께 참여한 10여 명의 구도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해서, 성전 결혼을 하게 될 광안 와드의 최두레 자매와 천안 지방부의 오세성 형제의 소개가 있었으며, 이어서 고등 평의원인 정용환 형제의 ‘멋’이라는 단어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 정 형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멋진 사람, 멋진 청년이 되어야 하며, 멋진 향기를 지닌 자매가 되어야 하는 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경전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충실하게 생활할 때 그 영이 얼굴에 비춰져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전하였다.

말씀이 끝난 후,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무도회가 시작되었는데, 한 스테이크에 속한 많은 독신 형제·자매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우정과 서로에 대한 관심을 쌓아 갈 수 있는 기회였다. (이희숙)

대구 스테이크 체육 대회

지난 10월 3일 대구 두류 야구장에서는 대구 스테이크 회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체육 대회가 개최되었다.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대회는 각 와드, 지부 별로 입장한 뒤 에어로빅과 더불어 준비된 모임이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주로 비슷한 연령 그룹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전체가 협동심을 느낄 수 있는 단체 게임들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스테이크에서 추진했던 재활동 촉진 프로그램과 선교 사업이 성과를 거두어 많은 비활동 회원과 구도자들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대회 결과 1위는 모든 회원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였고, 참석 인원도 성찬식 참석 수보다 오히려 많았던 경산 지부가 차지했다.

대회가 끝난 뒤 돌아가는 회원들의 마음속에는 가을의 풍성함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또한 가득했다.

대회에는 총 380여 명의 회원 및 구도자가 참석했다. (정현종)

광주 스테이크 선교 30주년 특별 대회

지난 9월 21-22일 양일간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광주 지역 선교 30주년 특별 대회가 개최되었다. 교리와 성약 82편 14절의 “이는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어져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함이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는 말씀을 주제로 한 이 대회는 광주 지역에 30년 전인 1966년 8월 28일 몇 명의 선교사가 파견되고 9월 2일 첫 안식일 모임을 가졌으며, 1967년 11월 광주 지부로 정식 조직되어 발전을 거듭하여 1980년 10월 25일 광주 스테이크로 승격되고 1996년 1월 순천 지방부를 분리시키기까지의 역사를 기념하여 개최된 것이다.

9월 21일 저녁, 초기 성도들을 초청한 가운데 특별 만찬 모임을 가진 후에 7시 30분부터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박병규 형제의 초기 성도 소개에 이어 ‘초기 광주 역사 60장면’이라는 사진 슬라이드를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본 후에 김종택 형제 등의 초기 성도들이 연단에 나와



대구 스테이크 체육 대회

그 시절의 추억 어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회고하며 눈물 어린 간증을 하며 지금의 발전에 대한 감격을 전했다.

이튿날인 22일에 열린 특별 대회에서 홍병식 대전 선교부장은 환영 말씀을 통해 초기 한국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행한 노고를 치하하며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성도들도 조국의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기 성도들의 간증 순서에서 전 학동 와드 감독이었던 김태화 형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도자의 기도와 봉사로 교회에 남게 되었고, 자녀들이 교회 모임과 지도자들의 모범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장해 늘 감사한다."고 간증했으며, 박삼곤 형제는 "3년 동안의 봉사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바탕이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전했다.

귀환 선교사들의 특별 찬송에 이어 역대 스테이크 부장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1대 스테이크 부장이었던 박병규 형제는 윌리와 마틴의 손수레 부대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초기 성도들의 희생과 노고에 대해 말씀하면서 "우리 주위에 구원해야 할 사람이 많이 있다. 힘을 합하여 활동이 저조한 회원을 찾자."고 말씀했고, 제2대 박학천 형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뿜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씀했다. 회중 찬송에 이어 제3대 스테이크 부장이었던 김제안 형제는 "광주 스테이크의 발전은 초기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다져진 것이다. 역사가 변천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지만 교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고, 현 스테이크 부장인 임중하 부장은 "초기 성도들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 종아 잘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정말로 가슴 벅찬 일이다."라고 말했다.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는 "개척자는 길을 보여 주는 사람이며, 우리 모두가 개척

자이므로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길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다.

역대 구모라 합창단원들이 '내 구주 살아 계시다'를 폐회 찬송으로 부르는 가운데 영이 충만했던 모임이 끝났으며, 이 모임을 통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 지역 출신 초기 성도들과 비활동된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더불어 과거를 되새기고 형제애를 나누며 선교 사업의 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 모임은 비디오 테이프와 책자로 제작되어 광주 스테이크의 역사 자료로 남길 예정이다. (서나미)

서울 서 신학 연구원 태버나클 축제

서울 서 신학 연구원 학생회는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태버나클 축제를 이도환 원장의 감리로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였다.

"저들은 모두 젊어 뛰어나게 웅망스럽고 기운차며... 모두 진실하고 신중한 사람들이었더라." (엘마서 53:20-21)라는 말씀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20일 복음 성가 경연 대회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주님의 복음의 참 뜻과 선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닌 노래를 가지고 출전한 아홉 팀은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찬조 출연한 한창희 형제가 오카리나로 찬송가를 연주하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 경연 대회에서는 이중호, 민경익 형제 팀이 영예의 1등을 차지했으며, 이들 외에도 잘 준비된 형제·자매들의 노래는 관중들이 영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또한 힘찬 응원전과 더불어 펼쳐진 농구 대회를 통해 젊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접전 끝에 노련미를 자랑하는 Doom II가 승리하였다. 그 밖에도 '영상 팔빙수 가게'와 '물두더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 카니발과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무도회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힐라맨의 이천 용사들의 모범을 좇아 지치지 않는 말일성도의 모습을 한껏 보여 줄 수 있었던 이번 태버나클 축제는 서 신학 연구원 학생회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4일 간에 걸쳐 총 연인원 280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성인)



태버나클 축제를 준비한 서울 서 신학 연구원 학생회 임원들

이 교회의 회원임이 자랑스럽습니다

1996년 7월부터 부산 선교부장으로 부름 받아 봉사하고 있는 리시먼 부장 부부를 만나 보았다.

고향은 어디며 가족 사항은?

고향은 유타 주 로건 시이고, 가족은 사랑 받는 아내와 네 명의 자녀가 있는데 큰 딸과 둘째 딸은 결혼해서 솔트레이크에 살고 있고, 셋째 딸은 포르투갈 선교부로 부름 받아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막내 딸은 휴학하고 한국에 함께 와 있으며, 손자 한 명과 손녀 한 명이 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언제부터입니까?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선교사로 한국에서 봉사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일곱 개의 지부만이 있었는데 모든 지역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20여 번 정도 잠깐씩 방문했고, 지금 선교부장으로 와 있습니다.

선교부장으로 처음 부름 받았을 때의 느낌은?

무서웠어요.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놀라운 부름이었습니다. 핑클리 대관장님의 전화를 받고 부름이 왔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부산 선교부를 이끌고 나갈 지침은?

처음부터 저는 선교사들이 순종하는 것과 규칙을 잘 지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규칙을 지킬 때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에게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저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교 사업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것을 돕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원들과 함께 봉사하는 선교부



가 되고, 회원들이 저희를 신뢰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회원들이 그들의 친구를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누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성도들에게 배울 점은?

한국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신앙이 있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가족 중에 혼자만 회원이거나 일부만 회원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놀라운 신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교회와 집의 거리가 가까운데, 이곳 부산만 보더라도 교회까지 거리가 멀어서 교회에 가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회원들이 모든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강한 신앙을 엿볼 수 있고, 그러한 모습들은 저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경전 구절과 찬송가는?

니파이일서 3장 7절을 좋아합니다. 선교부장의 부름이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송가는 “낮도 다 간 이 저녁에”입니다. 핑클리 대관장님과 갖는 간증 모임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너무 강한 영을 느꼈고, 구세주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행복하십시오. 핑클리 대관장님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대관장님은 선교사들이 행복하다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봉사한다면 규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은?

제가 이 교회의 회원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생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그 분을 통하여 이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의 가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리시먼 자매에게)

선교부장 자매로서의 마음 가짐은?

모든 선교사들은 사랑하고 지지함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부모님처럼 그들을 대하고 싶고,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들은 너무 쉽게 사랑하도록 행동합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가족입니다. 저는 그들이 저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 배운 한국말을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는 리시먼 선교부장이 간증을 전하면서 영에 감동되어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리시먼 자매와 함께 부산 선교부를 3년 동안 이끌어 나가기 위해 자주 대화하고 의논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부산 선교부가 새로운 선교 사업의 도약의 기회로 아주 훌륭한 선교부장을 맞이했으며, 리시먼 부장의 모범을

“감사 불감증”

권 찬 태 (대구 스테이크)



매사에 감사할 만한 일을
찾아 기뻐할 줄 안다면
그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된다.
주님께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나는 대구의 팔공산 가까이 살고 있다. 아내와 함께 아침 등산을 하면서 지저귀는 새들의 정겨운 아침 인사를 즐겨 듣는다. 귀여운 다람쥐의 재롱도 자주 목격한다. 시원한 바람에 나뭇잎은 나를 반겨 준다.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호수가 한 폭의 동양화로 다가온다. 아침해가 나뭇잎 사이로 작열하며 힘차게 떠 오른다. 또 다른 하루가 나의 앞에 전개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동산을 지어 주시고 광명스런 해를 뜨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허락하시니 진정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은 출근길에도 이어진다. 산간과 별판 사이의 가로수길을 드라이브하면서 철에 따라 변하는 나뭇잎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게 된다. 봄, 가을의 좋은 날이면 나는 강의실의 학생들에게 창 밖을 잠시 보게 한다. 그러고는 오늘 날씨가 어떠냐고 묻는다. 학생들은 함창이나 하는 듯,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크게 외친다. 그러면 나는 이러한 좋은 아침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크게 축하를 해 준다. 그러면 몇몇 학생들은 새삼 나의 말에 수긍이나 하는 듯 미

소를 지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강의실의 아침 인사가 자주 계속되어 학기 중간쯤 지나면 강의실에 들어가는 나에게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라는 인사가 먼저 들려 오기도 한다. 그러면 나는 크게 “축하합니다.”라고 답례한다.

이런 습관이 버릇이 되어 나는 요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조그마한 좋은 일이라도 있으면 축하를 잘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때때로 무슨 말이나고 의아해 한다. 내가 축하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면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축하를 하냐고 대답한다. 어떤 이는 축하해 주어 고맙다고 인사한다. 그러면 분위기는 좋게 변하고 모두 희색이 만연한다. 나의 이런 습관을 아는 분들 중에는 나를 만나면 농담처럼 먼저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네는 경우도 있다. 내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면 나도 간과했던 좋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다. 그때서야 나도 나의 좋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스쳐버렸음을 깨닫고 자신의 ‘감사 불감증’을 깨우치곤 한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축하할 만한 좋은 일들이 많고 감사할 일들도 많은데, 감정이 메말라서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다. 매사에 감사할 만한 일을 찾아 기뻐할 줄 안다면 그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된다. 주님께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전국에 계신 말일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언제나 행복한 말일성도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러시아에서의 선교 사업

김기용(영동 스테이크 영동 와드)

노년기에 접어들어 따라 나의 평생 소원의 하나였던 주님을 위한 선교 사업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던 차에, 마침내 나는 51년 전 일본 관동군 전쟁 포로로서 3년 반이나 시베리아에서 억류 생활을 한 적이 있는 러시아 땅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것은 그 당시 많은 일본군 포로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당신의 종으로 봉사하겠나이다." 하는 나의 성약과 "나의 후손으로 하여금 당신의 종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에서 힘입은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러시아에서의 선교 사업은 숙명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러시아 사람들의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내가 그 땅에 가서 선교 사업을 한다는 부푼 꿈을 안고 북아시아 지역의 첫번째 복지 선교 사로서 임지인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것은 1995년 5월 6일이었다.

그 곳에는 먼저 진출한 미국 회사 직원과 미국 영사관 직원들 중 회원들로 이미 지부가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지부장단의 집을 전전하며 예배 모임을 갖고 있었고, 지부장단이 출장이라도 가는 날이면 안식일 모임조차도 갖지 못한 때도 종종 있었다. 그 당시 미국 영사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25개의 종교 단체가 이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서 행정국에서는 그것이 사회의 큰 불안 요소가 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복지 선교사로서 나는 동양어 학교(개혁 후 생긴 사립 학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가르쳤으며, 구도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극동 대학에 가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곤 하였다. 이로부터 4개월 후인 9월 6일에는 미국에서 세 팀의 부부 복지 선교사들이 와서 각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1996년 2월 초에는 러시아어에 능숙한 여섯 명의 복음 선교사들이 모스크바와 미국에서 합류하여 교회 건물도 임대하고 선교 사업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96년 3월 25일, 내가 소개한 구도자 중 처음으로 동양어 학교의 영어 선생인 자매가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때 스승에서 우리 자매가 손목을 다쳐서 서울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나는 주님의 사업은 주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힘 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절감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것은 참으로 내 일생 동안 체험해 보지 못한 간곡한 기도였다. 나는 "너 이스라엘 장로는 다 나오라 너 어디에 있든지 의인 구하라 사막이나 산 위나 평야에나 순결한 자 시온에 데려오라"라는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면서, 나의 기도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의로운 것이어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의인을 찾아서 시온에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전동차 역에서 내 옆에 다가가 앉은 건장한 체격의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다른 러시아인들과는 달리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구소련의 육군 대위로 복무했던 사람으로 매우 학구적인 사람이었다. 우리는 곧 친해질 수 있었고,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모든 가족들과도 친하게 되어 마침내 교회에 참석하기에 이르렀다. 비슷한 시기에 동양어 학교 지리 교사가 나의 숙소로 찾아와서 친해지게 되었고, 후에 그 역시 교회에 참석하기에 이르렀다. 이 두 가장들은 7월 27일에 침례를 받고 아론 신권의 제사 직분을 받았다. 그 후, 나는 성찬식에서 이 형제들과 함께 성찬을 축복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때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온 주님의 도움 덕분이었다. 선교 사업을 통해

서 이러한 간증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내가 드리고 싶은 간증은 회복된 교회의 선교사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라는 사실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처럼 이 선교사들의 힘은 세상의 것에 대한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기도와 겸손에서 온다는 것과 또 이 사업은 용기와 노력과 헌신을 필요로 하며, 무릎을 꿇고 도움과 지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선교사로서 봉사한 18개월의 기간은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생애의 어떤 기간보다 더 큰 유익과 기쁨을 안겨 준 시간들이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실제로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때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간증으로 얻게 되었다.

이제 막 씨앗이 뿌려진 동토의 땅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며, 좀더 많은 회원들이 그들의 노년기에 주님의 사업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1925년 2월 25일 생인 김기용 형제는 1996년 9월 7일 러시아에서의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명예롭게 귀환했으며 현재 영동 스테이크 축복사로 봉사 중이다.)



김기용 형제 부부와 그들이 침례를 준 가족 회원

아르헨티나에서의 신앙 생활

소혜란 자매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7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에스타(siesta: 낮 12시 30분에서 오후 3시까지 가게들이 문을 닫는 점심 및 휴식 시간)가 지나서 가게문을 열려고 하는데 발 밑에 노란 봉투가 보였다. 뭔가 하고 집어서 보는 순간 너무도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함께 선교 사업을 했던 서용철 형제가 보내 준 성도의 벗이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내 생애에서 받아 보았던 몇 안되는 귀한 선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전에 신현주 자매에게서 고든 비 형클리 대관장님께서 5월에 한국을 방문하셨다는 편지는 받았지만 그 분이 한국에서 하신 말씀이 실린 성도의 벗을 직접 보게 되리라는 예상하지 못했다. 단지 대관장님의 말씀이 기록된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도 가슴이 떨렸

는데, 직접 그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한국 성도들의 느낌이 어떠했을지 조금은 짐작이 갔다. 성도의 벗을 통해 읽은 한국 성도들에 대한 그 분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말씀은 오랫동안 영적인 갈증을 느꼈던 나의 마음을 적서 주고도 남을 정도였다.

그 주 일요일, 나는 성도의 벗을 교회에 가지고 가서 사랑을 했다. 이 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이지만 결코 작지 않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정말로 사랑하시는 한국 성도 중의 한 사람이라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한국에서 27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인 이 낯선 나라로 온 지도 어느덧 만 2년이 되어 간다. 남편인 김상균 형제는 89년 8월에 이곳으로 이민와서 함께 이민은 회원 가족의 모범으로 개종한 사람이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그릇된 모범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이곳에 와서 가정을 중요시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89년 10월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다.

이곳 아르헨티나에는 여호와 증인이 많은데, 그들로부터 몇 차례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있다며 개종하기를 권유 받았지만(당시 우리 교회에는 결혼 적령기의 한국인 자매가 없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우리 교회의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그 후 이곳의 친척을 방문하러 오셨던 최정자 자매님과 최금옥 자매님의 소개로 우리는 만났고 94년 9월 24일 한국 서울 성전에서 결혼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먼저 오고, 나는 한달 후에 이곳으로 왔다. 겁도 없이 시작한 타국 생활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불경기는 전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는 대책도 없이 세금만 올리고, 도둑들이 판을 치고, 아이들은 몇 푼의 동전을 구걸하기 위해 거리를 헤메고...

이곳의 한인 이민사 30년 동안 한인 교회에

서 한인들을 상대로 쌀 배급을 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이 낯선 땅으로 와서 돈을 어느 정도 벌면 자녀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또 다시 이민을 간다. 그러나 작년은 하던 사업이 실패해서 도망간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상치 않는 빚을 지고, 공장과 도매 옷 가게를 정리하여 지금 살고 있는 캄파나라는 소도시로 온 지도 1년이 넘었다.

그동안 참 많이 울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빚 독촉에, 도와주리라 믿었던 사람들의 외면으로 서럽고 속상해서 울고, 한국이 그리우고, 가고 싶어서 또 그렇게 울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곳의 현지인인 교회 회원들이 우리가 집을 얻고 가게를 얻을 때 낯선 동양인인 우리를 위해서 선뜻 보증을 서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을 때, 비록 생긴 모습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해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여기 캄파나는 인구가 육만 오천 정도 되며 큰 강도 있고, 공기도 맑고, 조용하며, 사람들도 친절함, 생활하기에는 좋은 곳이다. 이곳에는 두 개의 지부가 한 건물에서 예배를 보고 있다. 우리가 참석하는 지부는 성찬식 참석수가 약 40명 정도 된다.

이곳 아르헨티나는 계절도, 시간도 한국과 정반대다. 그래서 1월에서 2월까지의 여름 휴가철이라서, 7월에서 8월까지의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해서 교회 참석자 수가 줄어든다.

이곳에서 성전까지는 버스로 2시간 정도 걸린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버스를 대절해서 성도들이 함께 성전을 방문한다. 무엇보다도 한국말로 의식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남편은 현재 지부장으로, 그리고 나는 청년회장단 1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남편은 얼마 전까지 지부장단 제1보좌로 봉사했었는데 지난 주 지부장으로 부름 받았다. 아직 이 나라



인생의 나침반

조동희(청주스테이크 석교 지부)



말도 익숙치 않고 부족한 우리에게 봉사하도록 부름을 준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싶다. 남편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밤잠도 설치더니, 이제는 어차피 부름 받은 것, 열심히 하겠다며 의욕이 대단하다.

생활에 지치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잊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세속적인 것에 속상할 때도 있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이며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해서는 안된다는 예언자의 말씀이 무색해질 만큼 현실은 때때로 냉혹하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지나고 보면 어떻게 그 위기들을 극복해 올 수 있었을까 하고 의구심이 들 만큼, 정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헤쳐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복음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아직까지 이 복음을 몰랐다면 열등감과 인생에 대한 회의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늘 마음속에 주님께 드리는 감사함으로 차고 넘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내가 누구인줄 알기에, 또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알기에 포기하거나 낙담할 수 없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나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의 선한 영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성도의 벗 지면을 통해 한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멀리 아르헨티나의 조그만 소도시에서 나의 사랑과 안부를 전하며, 믿음 안의 형제, 자매로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 본다.

Qu teuga bueu suerte ! (행운을 빕니다.)
Adios! (안녕히 계세요.)

(편집자 주: 소헤란 자매는 서울 서 선교부에서 봉사했던 귀한 선교사로서 아르헨티나로 떠나기 전에는 서울 스테이크 삼청와드의 회원이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고 규제하는 일정한 틀, 즉 표준이라는 것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지식, 신념, 가치관, 자신 또는 타인과의 약속, 종교적 교리, 사회 규범 등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표준의 1순위로 삼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표준'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는 언제까지나 바다를 떠돌아 다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확한 나침반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나침반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게 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 시절, 심한 문제아였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의 대부분은 욕설이었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길거리를 배회했고, 음란한 서적 등을 돌려가며 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또래 친구들의 말과 행동이 표준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물문경을 접하게 되었고 선교사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다시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높은 표준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츰 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욕설 대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순결의 법과 지혜의 말

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으나 강직하게 자신의 표준 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성실히 생활하고 친절하게 행동했으며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웃었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성내지 않았으며, "해라"라고 말하는 대신 "해줄래?"라고 말하고, 주먹 대신 파스한 악수를 청하는 손을 내미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고리타분하다고 비웃었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자 차츰 그에게 되돌아 왔고, '넌 정말 성실하다.'라며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 소년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착실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매우 수줍어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그냥 내가 정한 표준대로 생활하는 것뿐이야." 그러면서 소년도 무척 흐뭇했습니다. 그가 정했던 높은 표준은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했고, 자신도 모르게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지극히 높고 어려운 표준이었지만 그는 이 표준이 결코 동떨어지고 힘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노력 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높고 가장 완벽한 표준이며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소년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편집자 주: 이 기사는 대전 선교부에서 주최한 말하기 대회에서 한국어 부문 1등상을 수상한 것이다.)

미스터 코리아에 도전하는 말일성도

데이비드 알렌 에드워드 장로
(대전 선교부)

"1993년, 저는 처음으로 두 명의 미국인 선교사들을 보았습니다." 광주 스테이크 백운 와드의 회원이 된 문정민 형제는 말한다. "제가 인사했더니 그들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절했고, 저는 그들로부터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 문 형제는 보디 빌딩을 시작했고 곧 국내 보디 빌딩 대회에 나갈 만큼 빠르게 발전하였다. 계속해서 훈련을 하던 중에 그는 미스터 광주 선발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문 형제는 "1등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1등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말처럼 외로웠고, 매일 몇 시간씩 운동을 혼자서 해야만 했다.

"누군가 저와 함께 있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혼자일 때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말이죠..."

농성 와드의 회원인 이호영 형제는 문 형제와 같은 고등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호영이는 좋은 친구입니다. 호영이는 주위 친구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문정민 형제는 이야기한

다. 둘은 친구였기 때문에 문 형제는 호영이에게 하나님에 관해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어느 날, 문정민 형제와 이호영 형제가 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내 앞에 앉았다. "하나님에 관해 정민이에게 가르쳐 주세요. 정민이는 배우기를 원합니다."하면서 정민이를 나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호영 형제가 말했다. 나는 복음 토론 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그 곳에서 첫번째 토론을 하였다. 약 두 달에 걸쳐 훌륭한 스테이크 선교사인 최장호, 박화운 형제님, 이인숙 자매님의 도움을 받아 문정민 형제의 토론을 끝낼 수 있었다.

1996년 5월 25일, 문 형제는 침례를 받았다.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침례식은 아주 특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라고 문 형제는 이야기한다.

문정민 형제가 침례를 받고, 주 안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다. 부지런함과 온전하게 되길 바라는 소망은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성품이다.

"부모님은 저에게 탄생과 격려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캐빈이란 미국의 프로 보디 빌더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계속적으로 저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매일의 노력과 수고로 문 형제는 그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오를 수 있었다. 하루 두세 시간의 운동과 7,500칼로리의 식사를 통해서 85Kg의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고, 미스터 광주 타이틀을 다시 획득했으며, 계속해서 서울에서 열린 미스터 코리아 주니어부에서 우승하였다.

"서울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저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저의 첫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목표는 세계 주니어 챔피언입니다."

그는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훈련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

1978년 2월 21일 생으로 지금까지 문정민 형제는 그 나이로서 꿈꿀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이뤄 왔다. 이제 고등 학교 3학년이지만 결코 어리지 않은 그가 보여준 근면과 겸손과 부드러운 마음은 참으로 모범적이다.

"제가 만약 유명하게 된다면, 저는 집 없는 동물들을 돌봐 주고 싶습니다.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물결치는듯 하면서도 강철 같은 피부와 근육을 가진 문 형제는 진실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임이 틀림없다.

(편집자 주: 데이비드 알렌 에드워드 장로는 현재 대전 선교부내 홍성 지역에서 관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미스터 광주 선발 대회에서 우승한 문정민 형제(왼쪽)

시어머님의 신앙

이혜선 자매
(수원 스테이크 오산 와드)

저희 어머니는 대전 삼성 와드의 박종진 자매님이십니다. 어머니는 1987년 개종한 아들인 광석군 형제의 권유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곧 신권을 가진 아들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기 2년 전부터, 어머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셨고, 그 병은 어머니의 육신을 조금씩 조금씩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받으신 직후부터 어머니는 불편하신 몸으로 신학 연구원에 다니셨고, 1992년 2월, 신학 연구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4년 동안에 단지 두 번 신학원 강의에 결석을 하셨는데, 불가피한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섭섭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군복무를 마친 아들 광석군 형제와 함께 매일 아침 찬송과 기도, 경전 읽기를 해 오셨는데 광석군 형제는 지금도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것이었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외에도 어머니는 침상에 누워서서 많은 복음의 서적들을 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안식일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못하시지만, 그 분 스스로는 비활동 회원이 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머니와 함께 했던 안식일에는 어머니의 침상 곁에서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육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탄식의 말이나 원망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의 10년 간의 병고로 어머니는 최

근 1-2년 간은 말 할 수 있는 능력도 잃으시고,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시지만, 그런 긴 수면과 혼수 상태 중에도 잠깐씩 의식을 찾으실 때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눈으로 이해와 공감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듯 합니다.

어머니는 아마도 다음에 올 생을 마음에 그려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영의 세계를 그려 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회개하시고 온전히 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흠모하면서, 그리고 부활과 구속을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그 분들을 만나

빌 날을 그려보고 계신 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아 오신 어머니께 왜 이처럼 오랫동안 견디기 어려운 육신의 고통을 주시는 걸까?" 때때로 부족한 저희들이 갖는 이러한 의문과 탄식에 대해 어머니의 고요한 눈빛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분만이 아시는 더 큰 지혜와 뜻 가운데서 나는 자유롭다.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배운다면 이 엄마는 기쁘겠다. 내가 지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이처럼 간절하듯이 너희들의 신앙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다져지고 너희들을 겸손케하여서 부활과 영생을 더욱 소망하게 되기를 바란다."하고 말씀하고 계신듯 합니다.

지금 어머니의 침상 맞은 편 벽 위에는 어머니의 시선이 가장 잘 머물 수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긴 잠에서 잠깐씩 깨어나실 때마다 어머니는 그분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온유하심, 겸허함, 이해의 눈빛, 그리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따스한 손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모든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기억해 내시고 어머니는 기쁘게 그분의 손을 잡으실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와 시계의 초침 소리가 무겁고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용감한 신앙으로 어머니께 주어진 이 생을 살고 계시고, 또 그렇게 다음 생을 맞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 깨달음이 기쁘고, 복음 안에서 이해와 공감과 격려를 나누어 주시는 많은 벗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19기

(1996년 9월 2일 - 9월 20일)



〈성 명〉

김종윤 장로
이주희 자매
이혜선 자매
장용호 장로

〈출 신 지〉

서울 동 스테이크/상계 와드
청주스테이크/삼성 와드
천안 지방부/천안 지부
청주 스테이크/공주 지부

〈선 교 부〉

부산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부산 선교부

사진 설명:

왼쪽부터: 장용호, 이주희, 이혜선, 김종윤

역원 변경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감독: 김명수
(전임자: 강경구)
시흥 와드 감독: 한상선
(전임자: 최윤환)

바로 잡습니다

성도의 벗 1996년 10월호 교회 소식의
13쪽 '대구 스테이크 대체사 모임' 사진
설명 중 '배덕수'를 '배성수'로, 16쪽
새로운 조직의 영자 표기 'Hae Nam'은
'Yong In'으로 각각 바로 잡습니다.

해외로 부름 받은 선교사



정외순 자매

마산 스테이크
삼천포 지부
1996년 10월 9일
미국, 솔트레이크
템플 스퀘어 선교부



김은주 자매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1996년 10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